



왼쪽부터 '돈조'역 지춘성, '허운'역 정진, '돈조'역 배수백, '허운'역 오영수, '해산'역 명로진, '우지'역 이태환.

결코 가볍지 않은 내면의 소리

대학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 7월 9일까지



요절복통 수행이야기 '지대방' 리뷰

연극 '지대방'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쓰고 불교연극의 대가 강영길씨가 연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대방'을 둘러싼 진지한 이야기와 요절복통을 끌어내는 '재미'가 환상적으로 조화된 탓이다.

자그마한 무대는 산사의 승방으로 꾸며졌다. 드나드는 문에는 보살상이, 천정에는 단청을 입혀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다. 징 북 목탁 등은 다양한 음향효과를 연출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제 동안거(冬安居) 중인 겨울산사의 지대방을 훑쳐보러 가자.

칼바람이 매섭게 부는 산사. 그곳에서 절절 같은 수행 정진을 하는 스님들에게도 잠시 잠깐의 휴식이 풀갈이 달콤하게 주어지는 공간이 있다. 바로 지대방이다.

지대방은 사람의 큰 선방 옆에 딸린 작은 방으로, 안거에 들어간 스님들이 잠선 중간 휴식할 수 있는 공동생활 공간을 말한다. 몸과 마음을 서로에게 '기대는 방'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노장 허운 스님, 고뇌하는 학승 해산 스님, 막둥이 돈조 스님을 중심으로 평소 볼 수 없는 스님들의 생활상을 펼쳐 보인다.

참선하고 쉬는 시간이 오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포행한다. 스님들끼리 옛 가족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인근 비구니 스님 암자에 익어가고 있을 솔저도 스님들에게는 흥밋거리다.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의 한 조각이다.

그러나 지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 전부 아니다. 포행을 하면서도, 쉬면서, 깨달음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

뇌한다. 무문관에 든 도문 스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깨달음'을 갈망하고, 주인공 해산 스님은 무문관에 들어갈 뜻을 내비친다.

연극 '지대방'은 지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단박에 씻어 내렸다. 허허실실 마치 원효대사의 한 일면을 보는 듯한 노장 허운 스님은 극이 진행되는 내내 특유의 입담과 해학으로 단체관람 온 여고생 오빠부대를 탄생시켰다.

배우 면면의 깊이 있는 연기도 극에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었다. 자신이 출연하는 날이 아닌데도 관객석에서 묵묵히 연극을 지켜보는 배우 정진씨의 모습에서 '지대방'에 대한 배우들의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소리야?" "노스님, 바람소리인가 봅시다." "도둑이야!" "불이야!" 미리 관객들에게 준비시킨 문구에서부터 흥에 겨운 관객들의 애드립까지 지대방은 흥겨운 축제의 장이다.

고양에서 왔다는 한 보살은 "소품도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2시간 가까운 공연시간 동안 지루할 틈을 안주는 연극"이라며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연극은 처음"이라고 극찬했다.

공연은 7월 9일까지 대학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에서 계속된다. (02)3675-4675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선방 휴식 공간인 지대방서 일어나는 스님들의 또 다른 생활상 입담과 해학, 관객들의 애드립 2시간 공연 지루할 틈 없어

사건 훑쳐 보는 재미 '솔솔'

재판정에 선 증인은 셋, 그들의 말이 모두 틀리다?

역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비를 피해 무너져 가는 나생문(羅生門), 교토 근처의 작은 도시를 드나드는 뉘 앞에 스님과 나무꾼, 그리고 지나가던 가발장수가 모인다. 가발장수는 그 날 벌어진 괴이한 살인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산적 타조마루가 무사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강간했다는 사건. 산적의 증언에서부터 무사 부인, 죽은 무사의 영혼을 불러낸 무녀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면모가 서서히 밝혀진다.

2003년 7월 극단 수의 창단공연으로 성황리에 공연됐고 2005년 서울연극제 인기상을 수상했던 연극 '나생문'이 '2006 나생문(羅生門)'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6월 10일~7월 2일 '나생문'의 최종 완성판 '2006 나생문'을 선보인다.

입구는 물론 객석 바닥을 대나무와 흙, 잡초로 꾸민 자유소극장에서 관객은 사건을 몰래 훑쳐보는 목격자가 되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산적과 무사의 아내, 무녀의 입을 빌려 말하는 죽은 무사의 혼령, 목격자 나무꾼 시점에서 4개의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치밀한 이야기 속에서 스님은 이들의 고뇌를 떠안으며 극의 중심을 잡는다. 북 심벌즈 징 팽과리 등 타악 연주는 한바탕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무대를 더욱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

배우 최용민이 고뇌하는 스님 역을 맡고, 최광일이 산적 역을, 장영남이 무사의 아내 역을, 서현철이 가발장수 역으로 각각 캐스팅됐다. 연출은 구태환이 맡는다.

'나생문'은 일본의 아쿠다 카와 류노스케 단편 소설 '나생문'과 '달불 속'을 묶어 구로자와 아카라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작품이다. 구로자와 감독의 영화는 1951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1952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등을 수상했다. (02)741-3934

강지연 기자



'2006 나생문(羅生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6월 10~7월 2일

인도의 풍광 오케스트라로 듣는다

이호신 화백과 함께하는 니르바나 후원의 밤

6월 10일 저녁 6시 서울 원서동 한국불교미술박물관(02-766-5000)에서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이호신 화백과 함께하는 니르바나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의 저자 이호신 화백과 함께 한국화를 통해 바라본 인도의 풍광과 작품 활동 중의 에피소드를 듣는 음악회이다.

니르바나의 테마가 있는 연주의 첫 번째 무대인 이번 음악회에 이어 '불교, 요가 그리고 음악' '불교, 영화 그리고 음악' 등도 준비 중이다.

한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7월 7~8일 해남 미항사에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템플스테이 그 두 번째 무대 '미항사의 여름-니르바나 이상불과 시조의 만남'을 마련한다. 경주 남산 답사 음악회, 폐사지 음악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11월 22일에는 대원정사의 후원을 받아 KBS홀에서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연다. (02)415-2599

강지연 기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30,000원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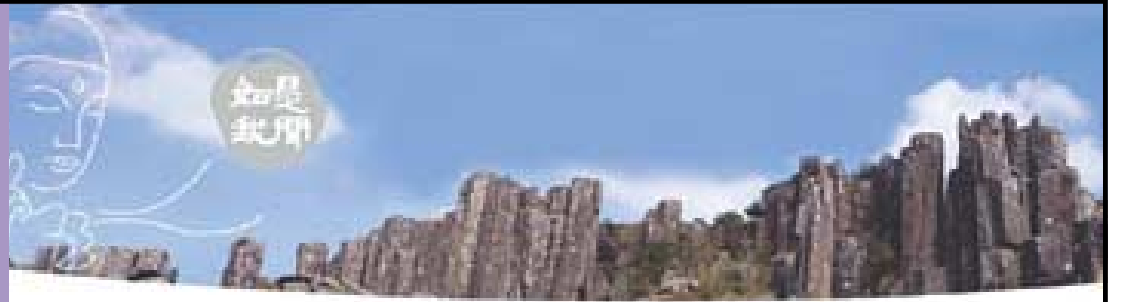
500세트 한정판매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회의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허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날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